

비례대표 진통...與 “줄여야” 野 “늘려야” 평행선

합의 여부 따라 전체 선거 지형 크게 달라

내달 3일이 테드라인...막판 수싸움 치열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잇달아 실패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테드라인(9월 3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막판 합의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각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에 이어 오후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정개특위는 다음 소위원회 개최 일자를 잠정적으로 오는 31일로 잡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최대 정점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에 ‘게임의 룰’인 획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5~26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설회에서는 전체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보고에 대해 경복, 강원 등 농어촌 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농어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8일 의총을 소집, 정개특위 양당 간사 합의안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농어촌 대표성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이다.

다만, 전체 의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이어서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도 28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개특위 경쟁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간사와 새정치연합 김태년 간사가 합의한 테드라인이 다음달 3일이라는 점에서 막판에 몰린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것인지 주목된다. 정개특

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해 어떠한 합의를 이루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구 지형이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현행 유지나 증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사가 기존에 합의한 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안보 민주 정부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라운지

주승용, 국회서 ‘교통사고 감소 목표 달성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계명대학교 김기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의 ‘2015년도 교통사고 감소목표 달성방안’,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승원 박사의 ‘업종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의 ‘이민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주제발표, 이후 지정토론 및 청중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3년 2월 헌정사상 최초로 ‘교통사고 제로화 실현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이후, 국회·정부·유관기관 등이 합심하여 많은 결실을 이뤘다”며 “특히,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최초로 5000명 이하로 줄이는 등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황주홍 “연말계 세월호 선체 사후 활용방안 용역 실시”



연우연구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인용, “추모사업과 연계해 외국사레조사 등 관련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용역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

월호 선체) 사후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한 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주해 선체 인양을 마치는 7월 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황 의원은 유기준 해수부 장관에게 “인양된 (세월호) 선체는 사고 발생지인 진도 팽목항에 전시돼야 한다”며 “아름다운 역사를 가까이 두고 되새겨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우택 정부위원장, 오늘 광주 평동산단 방문

정우택(새누리당) 국회 정부위원장이 광주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8일 광주 평동산단단지 등을 방문한다.

정 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정부위원들은 이날 평동산단을 방문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업무 총괄자 및 중소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 경기부진

에 따른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입법적·행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광주지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광주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지점장들이 참석해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의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새정치 복당은 공정한 공천 믿음·확신 있어야”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복당 여부에 대해 “새정치연합 중심으로 정권 교체 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 믿음이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이 나를 버렸다. 당이 그러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 복당 문제를 검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은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나오고 지도부가 그 혁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해 “정치인생 1장을 끝내고 2장 정치력을 의미있게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적 역할에 부합하는 곳이 나가겠다”며 “지역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누가 나오느냐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 내년 예산안 확장적 편성

DMZ전투력·대잠수함 전력 증강 국방비 대폭 늘려

野 “총선 겨냥 선심성 예산 편성” 비판 제기 할듯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생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우선 정부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고려

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지 않도록 하되,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마련된 추경 예산(11조 6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의 총량에 포함할지를 놓고 당정의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가급적 보수적으로 편성하려는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 그리고 대북 전력 증강 등에 주로 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제 확대,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 등 청년 일자리 확충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주거·의료 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준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각 지역에서 예산 편성 요구가 이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최대한 민자 사업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경우 야당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아파트 담보대출(특별금리상당)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가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원도와 낮은 금리로 상가대출+신용대출 까지~ •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 대출한도: 최고 50억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지급대출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 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북광주신협 일곡지점 572-8167

여성가족부 인정 2015-2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10월 12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61027

“성경일독 전문가와 함께하는”

구약 과정 신약 과정

▶ 교육일시 9월 24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구약, 신약 각 12주 과정]

▶ 교 재 구약 성경방위크북(이메일) 신약 성경방위크북(이메일)

▶ 강사 김강현 교수 외

광신대학교 외래교수, 생터성경사역원 본부장

혹시 당신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성경이 임하지 않아요!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